

‘숨쉬는 폴리’
‘이코 한옥’
‘웃칠 집’
‘에어 폴리’

‘순환 폴리’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를 풀어가다

“광주폴리는 기후 변화 시대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를 풀어가기는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 제5차 폴리는 그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총감독은 5차 폴리 전체 컨셉을 ‘순환폴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시대 화두인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축의 재료, 공법 등에서 순환 과정을 구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순환폴리’를 주제로 한 제5차 광주폴리 4개가 마침내 완공됐다.

22일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5차 광주폴리 최종결과물을 발표하고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작품은 ‘숨쉬는 폴리’, ‘이코한옥’, ‘웃칠 집’, ‘에어 폴리’ 등 모두 4개다.

작품 공개와 아울러 작품과 함께 광주폴리 둘레길 기획, 제작 과정 등도 소개됐다.

박양우 대표는 “광주 폴리가 지역에서는 다소 인지도나 호감도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외부인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며 “광주만의 독특한 관광명소뿐 아니라 치유와 힐링을 주는 폴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창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4개의 폴리는 ‘순환’의 주제에 따라 지역의 자원, 폐기물과 부산물을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배형민 감독은 “광주에서 100km 이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소재, 폐자원 등 재료로 지역을 정의했다”며 “물적 자원의 지식, 연구, 디자인, 제작 역량은 국내외로 폭넓게 포섭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들을 위한 장소 ‘숨쉬는 폴리’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외부보다 5도 이하 실내 환경을 구현한 ‘숨쉬는 폴리’는 ‘기후위기가 건축의 중심 과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배형민 총감독이 기후변화와 이동성을 제시하

고, 건축가 조남호가 건축의 해법을 구현했다. 건축 환경계획과 탄소 전 과정 평가는 친환경 전문가 이병호가, 제작은 수피아건축이 맡았다.

다공성 다발 목구조는 숨쉬는 외벽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실내 환경 조절을 위해 ‘쿨 튜브 시스템’이 도입됐다. 생성된 에어포켓이 더운 공기를 모은 뒤 전동창을 통해 배출하는 구조다.

제5차 광주폴리 완공 결과 발표

지역 자연 소재·폐자원 활용

둘레길 기획·제작 과정도 소개



‘숨쉬는 폴리’

◇ 환경 친화적 재생 ‘이코한옥’

‘이코한옥’은 한옥의 건축, 조경, 실내 요소를 순환과 재활용의 가치로 구현한 한옥이다. 광주 등 호남의 경제, 문화, 자원이 연계된 생태적 건축을 보여준다.

건축가 그룹인 어셈블(영국), BC 아키텍츠(벨기에), 아틀리에 무마(프랑스) 총 세 개 주체가 참



제5차 폴리배형민 감독이 공집에 설치된 ‘에어 폴리’의 제작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여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뿐 아니라 풍요로운 일상의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굴과 꼬막 껍데기를 비롯해 미역과 다시마, 벗겉과 왕겨 등 지역의 친환경 자원이 투입됐다.

◇ 자연의 재발견 ‘웃칠 집’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도요(이토 도요 건축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웃칠 집’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산림자원의 업사이클링에 도움을 준다. 옷은 동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뜻을 비롯해 접시, 무기, 농어업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돼 왔다.

이토 도요는 제작 역량을 토대로 옷의 가능성을 탐구, 건축과 공예를 매개로 새로운 제작 방식에 기여했다.

◇미역 폐기물 활용한 ‘에어 폴리’

버려지는 미역 줄기로 제작한 ‘에어 폴리’는 생태계의 순순환을 상징한다. 해양 폐기물로 제작된 생

분해성 비닐로 비닐하우스를 재해석하는데 초점을 뒀다.

재료의 수거, 제작, 사용, 분해 과정은 바다에서 도심, 그리고 다시 땅과 물로 돌아가는 해조류 비닐의 생애주기와 연동된다. 바다의 전진총과 최윤희 소장인 디자인과 연구개발을 주도했다.

가변형, 이동형 파빌리온으로 지난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미리 선보였다. 이후 제3차 광주폴리 ‘공집’ 속으로 이동해 ‘폴리 속의 폴리’로 자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나는 파리 사교계 이면에 드리운 비극

광주시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 25~26일 광주예술의전당

‘리콜레토’, ‘일 트로바토레’와 함께 베르디 3대 명작 오페라로 ‘언제나 자유롭게’, ‘축배의 노래’ 등 명 아리아로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바로 ‘라 트라비아타’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이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오는 25~26일(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빛나는 파리 사교계의 이면에 드리운 비극과 코르티잔(고급 매춘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매혹적인 여인 비올레타(김희정·박수연 분)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은 고독과 병으로 시들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에서 만난 젊고 순수한 귀족 청년 알프레도(강동명·이재식)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비올레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에 눈 뵈는다.

베르디는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극화해 당대 파리 상류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귀족사회에 만연했던 쾌락주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코르티잔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반문한다.

지휘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극장에서 카펠 마이스터로 활약했으며 독일음악협회가 ‘미래의 거장’으로 선정한 송안훈이 맡는다. 연출은 서울시립오페라단 단장으로 역량을 쌓아 온 이경재.

안무 작업은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이,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 및 광주시립합창단(합창지휘 이준)의 앙상블도 울려 퍼진다. 제르몽(바리톤)役に 공병우, 조재경, 도비니 후작(베이스)役に 나규보. 이외 서미선,



지휘 송안훈

연출 이경재

김진우, 김희열, 김일동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경재 연출은 “한 여인의 짧은 삶을 베르디의 역동적 음악과 드라마를 통해 무대에서 만난다”며 “원작 소설의 아련함과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오페라를 보면서 관객들이 베르디의 주제의식과 감동을 온전히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VIP 12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C석 1만원 등.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희생·헌신·모성 ‘학동 엄마’

빛소리오페라단 26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

극심한 시집살이,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에도 사랑을 실천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다. 1940~1990년 우리 근대사의 실감 나는 표정이 광주 학동을 배경으로 무대 위에서 구현된다.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이 창작오페라 ‘학동 엄마’를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선보인다. 2015년 창작 초연 후 6년간 꾸준히 상설공연으로 펼쳐 온 작품을 마지막으로 감상할 기회다.

작품은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 6·25 전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희생, 헌신, 모성을 깨달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승범(김용덕 분)과 창범(김중우)의 2중창, 금희(박정연)의 아리아 ‘떠나야 하나’를 비롯해 2중창 ‘새로운 삶’ 등이 울려 퍼진다.

이여 무도회 장면에서는 육본(장희정)과 현대(이원용)의 ‘사랑의 맹세’, 김주영(효동초4) 어린이 솔로곡 ‘엄마 어디 계세요’ 및 금희 아리아 ‘잘 살거라, 승범’ 등을 부른다. 합창 ‘무등산 어머니’



창작오페라 ‘학동 엄마’. 〈빛소리오페라단 제공〉

와 2중창 ‘어머니의 품’도 레퍼토리에 있다.

지휘는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에서 활동 중인 박미애가 맡는다. 금희 역은 광주대 음악학과에서 공부한 뒤 전문 성악가로 활동 중인 박정연, 육본 역은 동신대 외대교수로 있는 장희정이 출연할 예정이다.

친정엄마 및 조현덕(시아머니) 역은 광주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박정희, 현대 역은 경북대 공연예술학과 겸임교수로 있는 이원용이 연기한다. 이의 서울대 음대 출신 김중우, 목포 하당초 교사인 김용덕 등이 무대에 오른다.

총감독 및 연출을 맡은 최덕식 단장은 “오직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친 어머니의 사랑을 오페라 형식으로 엮었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

ACC 창·제작 ‘물입미감’ 전 26일 과천시민회관 갤러리

채용신 작가의 ‘고종황제 어진’, 김중현 작가의 ‘정물(꽃)’, 허달재 작가의 ‘매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창·제작 전시 ‘물입미감’이 과천에서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6일까지 과천시민회관 갤러리 마루·아라에서 ACC 창·제작 전시 ‘물입미감: 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아시아 근대미술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형상화했다. 콘텐츠에 상호작용 기술을 적용, 참여형 체험 위주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전시에서는 한국 근대화의 중요 인물인 김중현 작가의 ‘정물(꽃)’과 ‘춘양’을 비롯해 이재창 작가의 ‘드로잉 2’, 채용신 작가의 ‘고종황제 어진’ 등이 관객을 찾아간다.



허달재 작 ‘매화’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허달재 작가의 작품 ‘매화’도 있다. 허 작가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남중 문인화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화가이다.

이에 앞서 ACC재단은 경남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물입미감’ (8월 16일~9월 10일)을 열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오현화 ACC재단 팀장은 “과천문화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 근대 회화 작품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ACC의 우수 콘텐츠 가운데 하나”라며 “상호작용 체험이 가능한 실감 콘텐츠를 여러 지역민들이 향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교보문고, 지역서점에 한강작가 책 우선 공급

교보문고는 오는 31일까지 일부 매장에서 한강 작가 도서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 기간 입고된 도서는 지역서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점조합이 교보문고가 거래하는 지역서점들에게 한강작가의 책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다. 교보문고는 현재 도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서점과의 상생차원 일환으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쁨을 지역서점과 함께 나누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 작가 도서의 지역서점 우선 공급은 이와 맞물린 조치로 해당 기간 중 교보문고 전국 34개 매장 중 26개 매장에서 한강작가의 도서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이 회 8개 매장에서는 한정 수량

판매가 이뤄지며, 동일 기간 입고된 매장 판매분 도서는 전량 지역서점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수량으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교보문고 매장 공급물량이 일평균 1만7000여권이었다. 이 가운데 2900여권이 지역서점으로 공급됐다. 22일부터는 교보문고 매장 공급물량을 일평균 2000권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량 지역서점으로 배분한 상태다. 이를 통해 지역서점에 일일 평균 최대 1만5000권 가량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1일까지 지역서점으로부터 한강 작가 도서 18종 주문량은 약 9만9000권에 이른다. 이중 현재 출고된 권수는 약 5만8000권, 나머지 4만1000권 가량은 수일 내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